

금요 양성 7월 25일 성 프란시스코와의 관계 (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

재속프란치스코 회원은 어떤 점에서 다른 천주교 신자들을 구별되는가? (5부)

이번 주에는 우리 재속회의 창설자와 우리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우리의 창설자에 대한 지식과 그분과의 관계는 프란치스코안으로서의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회의 창설은 우리를 위해 모범을 보여주신 교회의 성인들 중 가장 위대한 분 중의 한 분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실, 서약할 때에 우리는 프란시스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을 살겠다고 약속한다. (이 연재의 첫주에 인용된 서약 예절 참조) 우리에게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카라스마를 충실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란시스 성인이 직접 쓰신 글이 있어 참으로 복되다. 성인의 기도와 편지들이 수년간의 묵상과 닦음의 자료가 되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밝혀 준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썼다고 알려져 있거나 그에게서 기인 된 글이라고 믿어지는 글이 30편이나 된다. 이 글들은 프란치스코안들에게는 진정 보물이다. 이에 비해, 프란치스코 성인의 동시대 성인인 도미니코 수도회의 창시자 도미니코 성인의 글은 4 편에 불과하다. 프란시스 성인의 글을 통해 재속프란치스코안들은 성인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가진다. 그 글들 통해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재속 프란치스코안으로서의 삶을 사는 동안, 성인이 쓰신 모든 글을 읽어볼 시간이 있겠지만, 우선 아래의 다섯 문서를 살펴 보라. 이들 각 문서는 간단하고 유익한 머리말과 함께 3권으로 된 “초기 문서” 나, 프란치스코 지식 전통 웹 사이트, <https://franciscantradition.org/> 에서 볼 수 있다

성 다미아노 십자가 앞에서 드리신 기도- 회개를 위한 이 간단하고 짧은 기도는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 주고” 하느님의 계명에 순명하는데 필요한 영적 선물을 주시도록 하느님의 자비를 탄원하는 기도이다. [FA:ED, vol. 1, p. 40](#)

초기 권고 (신자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는 1978년 재속 프란치스코 회칙의 서문으로 사용되고 있다.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보낸 것으로, 성인의 영적 운동과 연관되어 있는 평신도 회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의 양식을 제시한다. [Earlier Exhortation: FA:ED, vol. 1, p. 41](#)

봉사자에게 보낸 편지는 자비와 작음이 성인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 주며 섬기는 봉사자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FA:ED, vol. 1, p. 97](#)

권고들은 날짜 미상의 성인의 글 모음으로서 성인께서 복음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형제회안에서의 삶이 어때야 되는 지를 보여 주는 창이 되는 글이다. [FA:ED, vol. 1, p. 128](#)

레오 형제에게 보내신 편지는 친밀하고 배려심 많은 형제로서의 프란시스코의 모습을 보여 준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언급한 상황- 특히 길을 걸으며 레오 형제와 나누었던 대화 - 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지만, 프란치스코의 사랑과 연민에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FA:ED, vol. 1, p. 122](#)

*태양의 찬가*는 하느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프란시스의 위대한 시이다. 프란시스와 자연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친족 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나며 하느님의 시인과 음유 시인으로서의 프란시스의 위상을 보여준다.[CA:ED, p. 391](#)

우리 시대의 아이러니는 프란시스 성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글, “평화의 기도”라고 불리는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는 전혀 성인이 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글은 1912년 경에 프랑스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파리에서 출판된 영적 잡지에 처음 소개 되었다. 깊은 믿음을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 사용된 어휘들은 프란시스 성인이 전혀 사용했던 적이 없는 단어들이며 그의 고유한 기도들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이와 유사하게 프란시스의 특성이 묻어 있는 많은 문구들 (예를 들면 “복음을 선포하라, 필요하다면 언어를 사용하라.”) 은 이 문서들 안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들이다. 인터넷 페이지나 그 외 다른 곳에서 잘못 인용되는 성인의 글보다 영감을 주는 인용구문의 **보고(寶庫)**인 권위있는 원천들이 제공하는 내용들이 더 신뢰성과 의미가 있다.

회칙과 복음을 잘 아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프란시스 성인의 삶과 글들을 잘 숙지해 내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프란치스칸 카리스마는 우리 마음과 정신 속에 견고히 심어 지게 되고, 재속 프란치스칸으로서의 소명을 더욱 쉽게 살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협조해 주신 국가 양성 팀의 일원 Justin Carisio, OFS, 에게 감사드린다.

토론과 저널 쓰기를 위한 질문

수도회의 창시자의 글들이 왜 그분들의 추종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지 설명해 보시오.

위에 언급된 글들의 전문을 읽으시오.

--어떤 글이 감동을 주는지 주목해 보고

--어떤 것이 본인의 성소를 강화시켜줄 것 같은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오.

--어떤 것을 형제회와 나누고 싶습니까?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